

드림 그로 우



지고 나서 우는 아이, 뭐라고 말해 줘야 할까

반칙하는 아이를 위한 대화법 5가지 사례 + 함께 하면 좋은 보드게임 5가지

드림그로우 · 만 5~7세 '타율적 도덕성' 시기를 지나는 아이의 부모를 위해

차 례

- 01 지기 직전, 울먹이며 "안 해! 재미없어!"
- 02 지자마자 울음이 터졌을 때
- 03 지고 나서 판을 얹거나 카드를 던질 때
- 04 "엄마가 봐줘서 그래!" "한 판 더! 내가 이길 때까지!"
- 05 형제나 친구에게 지고 와서 서럽게 울 때



현직 초등교사 이한결 | 드림그로우

@dream_grow_lee

영상에서 한 이야기, 먼저 짧게

자꾸 반칙하는 아이,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아직 덜 자란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자꾸 반칙해?"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 피아제라는 분은

만 5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이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이나 규칙은 어른이 정해 주는 것이고,

어른 말을 따르면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놀이가 시작되면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큼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그 마음을 조절하도록 돕는 건 부모의 말입니다.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 규칙 뭐야? 네가 한번 이야기해 봐."

두 번째, 규칙을 바꿔서 반칙하려고 할 때

"반칙하지 마" 대신 "우리 규칙이 뭐였지?"

아이가 규칙을 자기 입으로 말해 봐야

부모가 정해 주는 '타율적' 단계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에는 영상에서 다 못 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반칙 다음에 꼭 따라오는 장면, **지고 나서 우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 아이가 지면 우는 이유

아이 마음	놀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규칙은 '어른이 정한 것'	왜 지켜야 하는지보다 '혼나지 않으려고' 지킵니다
결과로 판단	'졌다 = 나쁜 것'. 과정은 잘 안 보입니다
자기 중심	상대가 어떤 마음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는 순간이 아이에게는 '내가 나쁜 아이가 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우는 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아직 말로 못 해서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속상한 마음은 먼저 알아주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는 짧게 선을 긋는 일입니다.

아래 다섯 장면 모두 이 순서를 따릅니다.

01 지기 직전, 울먹이며 "안 해! 재미없어!"

흔한 말 (X)

"하다가 그만두는 게 어딴? 끝까지 해."

대신 하는 말 (O)

"지고 있어서 속상하구나. 그만하고 싶을 만큼."

"그래도 이번 판은 끝까지 해 보자. 끝나고 다시 할지 정하자."

왜 그렇게 말하는가

아이가 판을 그만두려는 건 놀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는 장면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을 먼저 말로 짚어 주면 아이는 '들켰다'가 아니라 '알아준다'고 느낍니다.

그다음 '이번 판만'이라는 짧은 약속을 주면 끝까지 버텨 볼 힘이 생깁니다.

02 지자마자 울음이 터졌을 때

흔한 말 (X)

"게임인데 왜 울어? 그만 울어."

대신 하는 말 (O)

"진짜 이기고 싶었구나."

(잠깐 안아 주거나 옆에 있어 주기)

"울음 그치면 아까 어디가 제일 아까웠는지 얘기해 줘."

왜 그렇게 말하는가

울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훈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말을 줄이고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뒤에 "어디가 아까웠어?"라고 물으면

아이는 이겼는지 졌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03 지고 나서 판을 얹거나 카드를 던질 때

흔한 말 (X)

"그럴 거면 다시는 하지 마!"

대신 하는 말 (O)

"속상해서 그런 거 알아. 그래도 판은 얹지 않는 거야."

"같이 주워 놓고, 다시 하고 싶으면 말해 줘."

왜 그렇게 말하는가

속상한 마음은 알아주되 행동에는 선을 긋습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 안에 같이 담아 주세요.

"다시는 하지 마"는 놀이 자체를 빼앗는 말이라, 아이는 지는 연습을 할 기회를 잃습니다.

던진 것을 함께 정리하는 데까지가 '선을 긋는' 일입니다.

04

"엄마가 봐줘서 그래!" "한 판 더! 내가 이길 때까지!"

흔한 말 (X)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네가 이겨." (일부러 져 주기)

대신 하는 말 (O)

"한 판 더 하자. 대신 이번 판도 처음에 정한 규칙대로야."

"이길 때까지가 아니라, 세 판까지만 하자."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일부러 져 주면 그날 울음은 멈추지만, 아이는 '울면 규칙이 바뀐다'는 걸 배웁니다.

영상에서 말한 두 번째 말처럼 규칙을 다시 짚어 주고, 판 수도 미리 정해 두세요.

정해진 판 수 안에서 지고 이기는 경험이 쌓여야 지는 일이 덜 무서워집니다.

05

형제나 친구에게 지고 와서 서럽게 울 때

흔한 말 (X)

"동생한테 지고 우는 게 말이 돼?"

대신 하는 말 (O)

"동생한테 져서 더 속상했구나."

"네가 이겼을 때 동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렇게 말하는가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서러운 마음은 그대로 받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상대는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묻습니다.

상대 마음을 상상해 보는 일이, 내 마음만 보던 아이가 남의 마음도 보게 되는 첫 연습입니다.

지금은 답을 못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 본 경험이 쌓이면 어느 날 스스로 "재도 속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와 재밌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 5가지

이 시기 아이와 할 게임은 세 가지를 보고 고르세요.

한 판이 짧아서 저도 금방 다시 할 수 있는지.
 실력만이 아니라 운도 조금 섞여 있는지.
 아이가 규칙을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지.

1 할리갈리

같은 과일이 딱 5개가 되면 먼저 종을 치는 게임입니다.
 한 판이 짧아서 저도 "한 판 더!"가 쉽게 나옵니다.

초등 2학년 교실에서 할리갈리를 하다가 다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 5개짜리 카드는 내 거"라고 우겼고, 다른 아이는 마음대로 카드를 가져가는 규칙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끼리 규칙을 다시 정하고 시작해. 단, 공정하고 모두가 만족해야 해. 시간은 충분히 줄게."
 아이들은 5분 동안 토론하고 새 규칙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며 더 즐겁게 놀았습니다.
 규칙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정해 본 아이들은 그 규칙을 더 잘 지킵니다.
 영상에서 드린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2 로보77

카드를 낼 때마다 나온 숫자를 더해 가는 게임입니다.
 두 자리 수 더하기를 놀면서 저절로 반복합니다.
 손에 어떤 카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카드가 안 왔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사례 1:2처럼 잘 우는 아이와 처음 하기 좋습니다.

3 메이크텐(make 10)·아이 씨 10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찾고 만드는 게임입니다.
 덧셈과 뺄셈의 기초인 '10 만들기'를 놀이로 익힙니다.
 규칙이 "더해서 10"처럼 짧아서, 시작 전에 아이가 규칙을 직접 말해 보기에 좋습니다.

4 루미큐브

숫자 타일을 이어 붙이거나 같은 숫자끼리 모아 내려놓는 게임입니다.
 교실에서 루미큐브로 수업을 해 보니, 수학을 싫어하던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 판이 조금 길어서 규칙에 익숙해진 아이, 초등 저학년 이상에게 권합니다.

5 다빈치 코드

상대가 숨긴 숫자를 추리해서 맞히는 게임입니다.
 틀리면 내 숫자를 하나 보여 줘야 합니다.
 지고 있어도 끝까지 생각하며 버티는 경험을 쌓기 좋습니다.
 이것도 초등 저학년 이상에게 권합니다.

어떤 게임이든 시작 전에 이 한 마디부터 해 주세요.

"이 게임 규칙 뭐야? 네가 한번 이야기해 봐."

부모 말 습관 체크리스트

놀이가 끝난 뒤 돌아보며 체크해 보세요.

- ☐ 시작 전에 규칙을 아이 입으로 말하게 했다
- ☐ "반칙하지 마" 대신 "우리 규칙이 뭐였지?"라고 물었다
- ☐ 울 때 훈계보다 속상한 마음을 먼저 말해 주었다
- ☐ 판을 옆었을 때 "그래도 판은 옆지 않는 거야"처럼 짧게 선을 그었다
- ☐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쳐 주지 않았다
- ☐ 마음이 가라앉은 뒤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았다

마무리

반칙하고, 지면 우는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규칙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 큰 아이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뒤에 남습니다.

오늘 게임 한 판, 시작 전에 이 한 마디부터 해 보세요.

"이 게임 규칙 뭐야? 네가 한번 이야기해 봐."

"부모와 아이의 꿈을 키웁니다"

-Dream_Grow-

이 어 서 읽 어 보 세 요

할리갈리 하다 지면 규칙부터 바꾸는 반칙하는 아이, '반칙하지 마' 대신 해 줄 말 2가지 꿀팁!

이 자료와 이어지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 드림그로우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글이 바로 열립니다

blog.naver.com/l0126j/224433363075

[네이버 블로그 '드림그로우'에서 더 많은 글 보기 >](#)



현직 초등교사 이한결 | 드림그로우